

한국 근현대 미술 100년을 되돌아보다



유영국 작 'Work3' (1979년 작)

화려한 조명이 비치는 전시장에 들어서자 한국 회화사에 한 획을 그은 '걸작'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학창시절 미술수업시간에 교과서에서 봤던 명화들이다. 어떤 작품부터 먼저 눈을 맞춰야 할지 마음이 바빠진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건 제1전시실에서 만난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의 컬렉션이다. 지난 5일 서울옥션의 제30회 홍콩세일에서 박 화백의

'공기놀이하는 아이들'이 1천500만 홍콩달러(한화 약 23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 때문이었을까. '소금장수', '고양이', '노상' 등 3점 만으로 전시장을 압도하는 박 화백의 작품에 시선이 머문다.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담은 박 화백 특유의 우돌투돌한 화면으로 표출한 한국적 미감이 인상적이다.

한국 근현대 미술 100년의 시간을 담은 '한국

돼 있다.

이어지는 2전시실은 '새로운 표현의 모색'이라는 주제 아래 광범위한 표현기술과 다채로운 방법론을 구현하며 현대미술의 다양함을 보여주는 작품들로 준비됐다.

평면회화부터 조각, 미디어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아우른다. 소재와 기법, 색채 등의 여러 요소들을 독창적으로 변화시켜 전통과 현대의 맥을 잇는 조형언어들이 신선하다. 미디어아트와 거장 백남준의 작품 '피버옵틱'(Phiber Optik), 권진규의 '상경', 이대원의 '농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3전시실은 '전통의 계승과 혁신'이라는 테마로 전통산수화의 발전과 현대적 계승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내걸려 있다. 과거 전통미술과 서양미술이

'한국 근현대미술 걸작전' 12월22일까지 여수 예술마루
작가 46명 역작 컬렉션... 회화·조각·미디어아트 등 전시



여수예술마루의 제2전시실 모습.



박수근 작 '소금장수' (1956년 작)



백남준 작 '피버옵틱' (1995년 작)

근현대미술 걸작전 (9월27~12월22일)이 열리고 있는 여수 예술마루의 전시장 풍경이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독자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한 작가 46명의 '문제작'들은 미술컬렉터인 이호재(가나아트재단)회장의 컬렉션으로 지난해 제주도립미술관, 올 3월 정읍시립미술관에 이은 세번째 순회전이다.

우리 미술사의 100년을 담은 전시단계 작가들의 면면이 단연 돋보인다. 먼저 1전시실은 '격동의 역사 속 빛나는 예술혼의 탄생'이라는 주제 아래 교과서에 등장할 만큼 역사적 가치가 확고한 걸작들로 구성됐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민주항쟁까지 혼돈의 시기 속에서 꽃 피운 한국 근현대 미술 백년을 되돌아본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이기도 한 박수근의 '소금장수'를 필두로 나혜석의 '녹동풍경', 김환기의 '산월', 유영국의 'Work 3', 오윤의 '대지 V', 장욱진의 '나무와 새' 등이 전시

20세기 한국사회의 감각과 정신을 흡수하기까지의 과정과 한국의 회화, 한국의 미술로 정착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표작들이다. 한국화의 지형을 넓힌 천경자의 '아열대 II', 진채화의 거장 박생광의 '한두사 II', 이당 김은호의 '승무'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그림마다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화선 출신 오지호 화백의 '설경'은 이호재 회장이 한 서양화 컬렉터에게 절대로 팔지 않고 평생 소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 손에 넣은 작품이고, 김환기 '산월'은 작가가 주치의였던 마태김에게 치료비 대신 준 작품 가운데 하나다.

또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중섭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정규, 한묵 작가의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관람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휴관), 관람료 8000원.

/여수=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

'하얀나비' 김정호 음악회 19~20일 수창초 특설무대

가수 김정호를 가리는 '하얀나비 김정호 음악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북동수창초등학교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33세에 폐결핵으로 요절해 '비운의 천재가수'로 불리는 광주 출신 가수 김정호(1952~1985)는 '하얀나비', '이름 모를 소녀' 등 한국적인 포크 음악 50여 곡을 발표한 싱어송라이터다.

광주시수협회가 주최하는 '김정호 음악회'는 지난 2015년 '김정호 추모음악회'로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최근 재개한 북구 주민참여형 골목 재생 사업 '김정호 거리 조성사업'도 진행 중이라 관심을 더한다.

이번 음악회 주제는 '1973 순수청년 김정호, 그가 가졌던 고래의 꿈'으로, 김정호의 음악적 가치관과 꿈에 대한 이야기에 무게를 뒀다. 이번 음악회는 콘서트, 뮤지컬, 음악학교 등 10여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19일은 국순철, 박현정 등 지역 음악인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 '하얀나비 뮤지컬하우스'로 막을 올린다. 이어지는 기념식에서는 김철수의 지휘로 아무르합창단, 신우신협합창단 등이 함께하는 '광주시민대합창'을 공연하며, 오후 8시부터는 적우, 유심초, 양현경 등 가수가 출연하는 김정호 음악회 본무대가 펼쳐진다.

다음날은 광주와 대구의 음악가들이 함께 만드는 교류음악회 '스페셜콘서트 김정호, 김광석을 만나다'가 진행된다. 또 김정호의 음악인생을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 뮤지컬 '하얀나비', 허남석, 신계행, 강은철, 김원중 등 가수와 양리머스, 스왈루피 등 지역 밴드의 무대로 김정호의 명곡들을 선보이는 '불후의 명곡' 무대가 이어진다.

한편 행사장 일대에서는 김정호의 곡을 통기타로 직접 배우보는 '김정호 음악빌리지', 전시, 포토존 등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유연재 기자 yjyou@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18~29일 유럽 투어공연 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18일부터 29일까지 유럽 투어공연에 나선다. 이번 투어공연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프랑스 보르도소년소녀합창단 15주년 기념 공연에 초청되면서 기획됐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43명의 협력단원들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3개국에서 현지공연과 문화탐방을 할 예정이며, 2박3일에 걸쳐

워크숍도 진행할 계획이다. 첫 공연은 20일 오후 4시(현지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생 폴 성당에서 열리는 '보르도소년소녀합창단 15주년 콘서트' 초청 무대다. 공연에서는 '캐논', 'The Prayer', '두꺼비', '들갈매길 접속곡', '빛고을아리랑' 등 합창곡과 팝송, 민요, 동요 등 11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보르도 소년소녀합창단과의 연합 합창으로

'아리랑', 'Stabat Mater', 'Deum de Deo' 등을 무대에 올린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보르도 생 앙드레 대성당에서 두 번째 공연을 연다. 이후 프랑스 파리 오페라극장(22일), 벨기에 그랑 플라스(24일), 네덜란드 로테르담 한글학교(26일)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